

‘아이들과 함께 좋은 비디오를!’

눈만 뜨면 비디오를 켜는 영상시대에 젊은 주부들이 아이들을 폭력·저질 비디오로부터 보호하고 자연과 문화에 대한 이해와 상상력, 그리고 무한한 꿈을 키워줄 좋은 비디오를 널리 보급하려는 노력을 쏟고 있다.

자신들이 해야 할 일만큼이나 긴 이름을 가진 ‘지구를 사랑하고 이웃을 생각하며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영상모임’(영상모임)을 만든 30대 초반의 강성혜·조인선·박나미·한영희·최진숙·박중현 주부들이 바로 그들이다.

고교·대학 동창이거나 문화단체활동을 하다 알게 된 이들은 지난해 6월 “좋은 비디오를 골라 아이들과 함께 보며 적극적

30대주부 ‘영상모임’

과수꾼 13

한두차례 대여된다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단적으로 말해주었어요.” “선경·금성 등 국내 유수기업들이 <야생 시리즈> 등 좋은 작품을 만들어 놓고도 시장성을 이유로 판매에 힘을 쏟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는 정말 분통이 터졌습니다.”

이들이 지금까지 모은 어린이용 테이프는 모두 3백여편으로, 그 가운데 1백여편은 강성혜씨가 이미 갖고 있던 것이며 나머지는 다달이 2만원씩 회비를 걷어 사거나 남편들이 해외출장 때 사들여온 것 등 다양하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어린이 비디오>란 회보를 펴내 비디오 작품을 평하고 좋은 비디오를 적극 소개하고 있다. 처음 10여부를 찍었으나 차츰 회보회원이 부쩍 늘어 최근에는 1백50여부를 발행해 제주도·백령도 등 지방회원들에게까지 보내주고 있다.

이와 함께 이들은 지난 4월말 공보처에 ‘아이들’이란 이름으로 출판사 등록을 마쳐 직접 선택한 우수 비디오를 소개하는 ‘책

사장되는 좋은 비디오 ‘발굴’

어린이용 3백여편 수집...회보통해 소개

으로 대처하자”는 데 자연스럽게 의견을 모아 ‘영상모임’을 만들게 됐다.

주부들은 어른들이 정성들여 선택한 비디오를 아이와 함께 보는 노력 없이는 유행처럼 번진 <드래건볼>·<바이오맨>·<플레이맨> 등 폭력·오락 비디오를 몰아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우선 자신들의 3~9살 난 자녀 12명에게 보여줄 좋은 비디오를 구하는 일부터 시작했다.

강씨 등은 비디오를 구하면서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다고 했다.

내용이 충실하고 아이들 교육에 딱 맞는 비디오는 팔리지 않아 시장에 나오자마자 수거되거나 아주 적은 분량만 유통돼 좀처럼 구할 수 없었던 것이다.

“비디오 평론가들에 의해 명작 중의 명작으로 꼽히는 <오즈의 마법사>·<사운드 오브 뮤직>·<뮤지컬 메리 포핀스>가 비디오 가게 구석에 처박혀 1년중 기껏



젊은 주부들이 아이들을 저질 비디오로부터 보호하고 좋은 비디오를 널리 보급하기 위해 ‘영상모임’을 만들어 활동하고 있다. 정례모임에서 ‘비디오 도서관’ 설립문제를 논의하는 광경. <임완호 기자>

나쁜 비디오를 쫓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라져가는 좋은 테이프를 구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애기다. 회원들은 가사일로 바쁜 중에도 청계천 종로 용산 등 비디오테이프를 판매하는 곳이면 가리지 않고 찾아가 좋은 테이프 모으기에 힘을 쏟았다.

자를 다음달에 낼 계획으로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아파트촌, 달동네, 농어촌 모두 나름대로 각자의 영상모임이 만들어져 우리 2세대에게 좋은 비디오만 보여줬으면 하는 게 궁극적인 바람입니다.”

영상모임 연락처 (02)549-2255. <이상기 기자>